

## 제 1 교시 국어

1. 다음 대화에서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상대방의 말과 관련 없는 대답을 하고 있다.
- ② 상대방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 ③ 상대방이 이야기를 이어 가도록 질문을 하고 있다.
- ④ 상대방의 고민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2. 다음 중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모: 표정이 좋지 않네. 무슨 일 있어?  
 조카: 친구들 앞에서 발표할 때마다 불안해요.  
 이모: 그럴 때는 발표하기 전에 ㉠

- ① 연습을 절대로 하지 마.
- ②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해 봐.
- ③ 참고할 수 있는 메모를 준비해 봐.
- ④ 몸을 가볍게 풀어 주는 것도 도움이 돼.

3.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언어의 특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말소리와 의미의 관계는 필연적이지 않다. 그래서 '나무'를 한국어로는 '나무[나무]'라고 하지만 영어로는 'tree[트리]'라고 한다.

- ① 사회성
- ② 역사성
- ③ 자의성
- ④ 창조성

4. 다음에서 설명하는 모음이 사용되지 않은 단어는?

단모음이란 소리를 낼 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는 모음을 말한다.

- ① 미로
- ② 여유
- ③ 잔치
- ④ 호수

5. 밑줄 친 단어의 품사가 ㉠과 같은 것은?

나는 ㉠ 새 구두를 신었다.

- ① 우아! 꽃이 예쁘다.
- ② 친구가 내 손을 잡았다.
- ③ 그는 옛 추억을 떠올렸다.
- ④ 여기가 바로 내 고향이다.

6. 다음 중 ㉠에 해당하는 문장 성분은?

아기가 잠을 ㉠ 새근새근 잔다.

- ① 주어
- ② 보어
- ③ 목적어
- ④ 부사어

7. 밑줄 친 부분 중 다음 규정에 맞게 발음하지 않은 것은?

## ■ 표준 발음법 ■

**[제14항]**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엣것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읊겨 발음한다. (이 경우, 'ㅅ'은 된소리로 발음함.)

- ① 그가 키우는 닭은 건강하다. → [다근]
- ② 바닥에 앉아서 책을 읽었다. → [안자서]
- ③ 언니는 아름다운 풍경에 넋을 잃었다. → [넉쓸]
- ④ 강아지가 아이의 손등을 훑어 주었다. → [할타]

8. 밑줄 친 부분이 '한글 맞춤법'에 맞게 표기된 것은?

- ① 이 집은 된장찌개가 맛있어.
- ② 내가 친구로서 너를 응원할게.
- ③ 갑기가 빨리 낳았으면 좋겠다.
- ④ 앞으로 어디에 가던지 꼭 전화해.

9. 다음 중 ㉠의 세부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제목	우리나라의 야생화, 달맞이꽃
처음	달맞이꽃 소개
중간	1. 달맞이꽃의 생김새 2. 달맞이꽃의 자생 환경 3. 달맞이꽃의 쓰임새 ..... ㉠
끝	달맞이꽃 보호의 필요성

- ① 달맞이꽃 이름의 뜻
- ② 달맞이꽃의 꽃잎 모양
- ③ 달맞이꽃이 잘 자라는 환경
- ④ 달맞이꽃을 활용한 천연염료

10. ①~④에 대한 고쳐쓰기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소음은 보통 불쾌하고 시끄러워 듣는 ① 사람을 별로 도움이 되지 ② 안는 소리를 말한다. 소음의 기준은 매우 주관적이다. ③ 백색 소음은 백색광에서 유래됐다. 아무리 좋은 소리라도 듣는 사람이 처한 환경이나 마음 상태에 따라서 그 소리가 소음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④ 결코 아기의 울음소리는 엄마나 아기에게는 아주 중요하고 의미 있는 소리지만 주변 사람들에게는 소음으로 들릴 수 있다.

- ① ①: 조사의 쓰임이 맞지 않으므로 ‘사람에게’로 바꾼다.
- ② ②: 맞춤법에 어긋나므로 ‘않는’으로 고친다.
- ③ ③: 글의 흐름에서 벗어난 내용이므로 삭제한다.
- ④ ④: 문맥에 어울리지 않으므로 ‘하지만’으로 고친다.

[11~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열무 삼십 단을 이고  
시장에 간 우리 엄마  
안 오시네, 해는 시든 지 오래  
①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엄마 안 오시네, 배춧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안 들리네, 어둡고 무서워  
금간 창틈으로 고요히 빗소리  
빈방에 혼자 엎드려 훌쩍거리던

─ 아주 먼 옛날  
[A]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 그 시절, 내 유년<sup>1)</sup>의 윗목<sup>2)</sup>

- 기형도, 「엄마 걱정」 -

1) 유년: 나이가 어린 때.

2) 윗목: 온돌방에서 아궁이로부터 먼 쪽의 방바닥. 불길이 잘 닿지 않아 아랫목보다 상대적으로 차가운 쪽이다.

11. 다음 중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계절의 변화가 드러난다.
- ② 후각적 이미지가 나타난다.
- ③ 화자가 과거를 회상하고 있다.
- ④ 묻고 답하는 형식을 사용하고 있다.

12. 다음 중 [A]에 나타난 화자의 주된 정서는?

- ① 슬픔
- ② 뿌듯함
- ③ 즐거움
- ④ 행복함

13. 다음 중 ①과 같은 비유적 표현이 쓰인 것은?

- ① 봄빛처럼 포근한 눈
- ② 민들레가 피고 까치가 날고
- ③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 ④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14~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소년은 서울에서 전학 온 소녀와 함께 산으로 놀러 가 줄거운 한나절을 보낸다. 소나기가 내리자 소년은 소녀를 업고 물이 불어난 도량을 건넌다. 소나기를 맛은 탓에 며칠 않았다는 소녀는 그날 입었던 옷의 얼룩을 보여 주며 얼마 뒤 이사를 가게 되었다는 소식을 소년에게 전한다.

① 개울물은 날로 여물어 갔다.

소년은 갈림길에서 아래쪽으로 가 보았다. 갈밭머리에서 바라보는 서당골 마을은 쪽빛 하늘 아래 한결 가까워 보였다. 어른들의 말이, 내일 소녀네가 양평읍으로 이사 간다는 것이었다. 거기 가서는 조그마한 가겟방을 보게 되리라는 것이었다.

소년은 저도 모르게 ② 주머니 속 호두알을 만지작거리며, 한 손으로는 수없이 갈꽃을 휘어 꺾고 있었다.

─ 그날 밤, 소년은 자리에 누워서도 같은 생각뿐이었다.  
[A] 내일 소녀네가 이사하는 걸 가 보나 어찌나. 가면 소녀를  
└ 보게 될까 어떨까.

그러다가 깨무룩 잠이 들었는가 하는데,  
“허, 참, 세상일도…….”

마을 갔던 아버지가 언제 돌아왔는지,  
“윤 초시 댁도 말이 아니야. 그 많던 전답<sup>1)</sup>을 다 팔아 버리고,  
대대로 살아오던 집마저 남의 손에 넘기더니, 또 악상<sup>2)</sup>까지  
당하는 걸 보면…….”

남포불<sup>3)</sup> 밑에서 ③ 바느질감을 안고 있던 어머니가,  
“증손이라곤 계집애 그 애 하나뿐이었지요?”  
“그렇지. 사내애 둘 있던 건 어려서 끊어버리고…….”

“어쩌면 그렇게 자식 복이 없을까.”  
“글쎄 밀이지. 이번 앤 꽤 여러 날 앓는 걸 약도 변변히 못 써 봤다더군. 지금 같아서는 윤 초시네도 대가 끊긴 셈이지…….  
그런데 참 이번 계집애는 어린 것이 여간 잔망스럽지<sup>4)</sup>가  
않어. 글쎄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다지 않아? 자기가 죽거든  
④ 자기 입던 옷을 꼭 그대로 입혀서 묻어 달라고…….”

- 황순원, 「소나기」 -

1) 전답: 논밭.

2) 악상: 짚어서 부모보다 먼저 자식이 죽는 경우.

3) 남포불: 남포등에 켜 놓은 불.

4) 잔망스럽다: 알집도록 맹랑한 데가 있다.

14.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소년’은 ‘소녀’의 죽음을 알게 되었다.
- ② ‘윤 초시 댁’에 불행한 일이 일어났다.
- ③ ‘소년’은 양평읍으로 이사를 갈 예정이다.
- ④ ‘아버지’는 ‘소녀’를 잔망스럽다고 여긴다.

15. 다음 중 [A]에 드러난 갈등의 유형은?

- ① 인물의 내적 갈등
- ② 인물과 사회의 갈등
- ③ 인물과 자연의 갈등
- ④ 인물과 다른 인물의 갈등

16. ①~⑤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죽어 가면서도 ‘소년’과의 추억을 간직하고 싶어 하는  
‘소녀’의 마음이 드러나는 소재

- ① ㉠
- ② ㉡
- ③ ㉢
- ④ ㉣

[17~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병에 걸린 남해 용왕에게 토끼의 간이 약이 된다고 하여 별주부가 토끼를 용왕 앞에 데리고 온다.

“토끼의 간이 아니면 다른 약이 없는 처지에 별주부가 충성심을 발휘해 그 혐한 육지에 가서 너를 잡아 왔느니라.

㉠ 네 간을 내어 먹고 짐의 병이 낫는다면, 토끼 너의 공을 어찌 잊겠느냐. 우리 용궁 최고의 건축물인 기린각 능운대에 네 이름을 새겨 길이 보존할 것이다. 그게 아니면 네가 원하는 것은 다 이루어 주마. 목숨을 바쳐 명분을 이루는 것 또한 의미 있는 삶이 아니겠느냐. 그러니 조금도 서러워하지 말고 어서 칼을 받거라.”

(중략)

토끼는 바닷물 빛이 보이지 않도록 한참을 홀짝 가서야 바위 위에 높이 앉아 마음껏 별주부에게 ㉡ 했다.

“이놈 자라야! 네 죄를 따지자면 죽여도 아깝지 않도록 괘씸하다. 만일 내 말재주가 네 용왕처럼 미련했더라면, 아까운 이내 목숨 수중 원혼이 되었겠구나. 옛 책에는 ‘짐승이 미련하기가 물고기와 같다.’ 했는데 너희 물고기들이 미련하기는 우리 텔 있는 짐승보다 더하구나.

오장에 불어 있는 간을 어찌 넣고 빼고 할 수가 있겠느냐? 네 소행을 생각하면 산속으로 잡아다가 폭 삶아서 백소주 안줏감으로 초장이나 찍어 먹으며 우리 동무들과 잔치를 벌이고 싶은 마음 간절하구나. 그러나 임금을 위하는 마음에서 그런 것이며, 만경창파 그 먼 길을 네 등으로 왕래 하며 죽고 사는 고생을 함께하였기에 목숨만은 살려 보내 주겠다. 그리 알고 속히 궁으로 돌아가거라.

좋은 약을 보내기로 네 왕에게 약속했으니, 점잖은 내 체면에 어찌 식언을 하겠느냐? 내 뜻이 매우 좋아 열을 내리게 한다 하여 사람들이 주워서 앓는 아이에게 먹인단다. 내가 살펴 보니 네 왕의 두 눈자위에 열기가 아주 많이 몰렸더라. 이걸 갖다가 먹이면 병이 곧 나을 게다.”

토끼는 작은 총알 같은 똥을 많이 누어 침입에 단단히 쌌어서 별주부 등에 올려놓고 칡으로 감아 주었다. 별주부는 할 수 없이 토끼 똥을 짊어지고 수궁으로 발길을 돌렸다.

죽을 목숨 살아 나온 토끼의 기쁨이야 오죽하겠는가. 깡깡깡장 뛰어가며 혼들흔들 방자하게 뽐내며 자랑하는 모습이 혼자 보기 아까웠다.

“나의 재주는 내가 생각해도 신통하구나. 매끄러운 말솜씨로 용왕을 속여서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왔구나. 반갑구나, 반가워. 우리 고향 반갑구나. 푸른 산, 푸른 물, 모두 전에 보던 그대로다. 내가 앓아 출던 저 높은 봉우리와 흰 구름도 변함없고, 나무 열매도 주워 먹던 그대로구나.

[A] 아이고! 너구리 아재요, 평안하시지요? 오소리 형님도 잘 있었지요? 모두들 벼슬 생각, 이사 생각, 절대로 하지 마시오. 벼슬하면 몸 위태롭고, 타향에 가면 친대 받는다는 옛말 하나 그른 것이 없습니다.”

한편 토끼를 놓쳐 버린 별주부는 ‘차라리 육지로 올라가 죽어 버릴까?’ 하는 생각도 했다. 하지만 처자식과 늙으신 어머니가 마음에 걸려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수궁으로 돌아갔다. 다행스럽게도 토끼가 준 토끼 똥의 효험이 있어 용왕의 병이 씻은 듯이 나았다. 그토록 원하던 충신이 되어 어머니와 아내, 자식 모두 함께 평안한 여생을 누렸다.

- 작자 미상, 『토끼전』 -

17. [A]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토끼’는 ‘용왕’을 속이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 ② ‘토끼’는 ‘오소리’에게 이사를 권했다.
- ③ ‘용왕’은 ‘토끼’의 똥을 써서 병이 나았다.
- ④ ‘별주부’는 자신이 원하던 충신이 되었다.

18.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용왕’이 ‘토끼’에게 원하는 것
- ② ‘토끼’가 살기 위해 지켜야 하는 것
- ③ ‘별주부’가 ‘용왕’에게 바치고 싶은 것
- ④ ‘너구리’가 열을 내리기 위해 먹는 것

19. 다음 중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아첨
- ② 축하
- ③ 충성
- ④ 호령

[20~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우리에게 문이란 어떤 뜻이 있을까? 국어사전에는 ‘드나들거나 물건을 넣었다 꺼냈다 하기 위하여 트위 놓은 곳. 또는 그곳에 달아 놓고 여닫게 만든 시설.’이라고 정의되어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좀 더 자세하게 말하면 문은 기능의 측면과 동시에 상징의 측면도 가지고 있다. 거기로 사람이 드나들 뿐 아니라, 어떤 것의 경계를 ㉠ 표시하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기점 역할도 한다.

(나) 문은 여닫는 방법에 따라 크게 옆으로 밀어 여는 미닫이 문과 안팎으로 여닫는 여닫이문이 있는데, 여닫이문은 다시 실내를 ㉡ 기준으로 하여 문이 안쪽으로 열리는 안여닫이와 바깥쪽으로 열리는 밖여닫이, 그리고 안팎으로 모두 열리는 양 여닫이로 나뉜다. 그런데 이러한 문들은 건물의 쓰임새에 따라 어떤 건물에는 안여닫이가, 어떤 건물에는 밖여닫이가 사용된다.

(다)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의 현관문은 문을 여닫는 방향을 결정하는 요인이 공간 활용인 측면이 강하다. ⑤ 신을 신고 실내로 들어가는 외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신을 벗고 실내로 들어간다. 즉 신을 벗어 둘 공간이 필요할 것이다. 그 공간의 크기는 집의 ⑥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략 1제곱미터( $m^2$ ) 내외이고 현관문의 폭도 1미터(m) 내외이니, 만약 현관문이 안으로 열린다면 문을 열 때마다 현관에 벗어 둔 신들이 이리저리 쓸려 다닐 것이다.

(라) 은행은 다른 어느 곳보다도 안전과 신용을 중시하는 곳이다. 물론 모든 건축이 안전을 ⑦ 전제한다는 점은 은행과 마찬가지이다. 단지 대부분의 건축이 생각하는 안전은 재난으로부터의 대피에 주 관심사가 놓여 있는 데 비해, 은행은 도난으로부터의 안전이 주 관심사인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은행에는 안여닫이를 다는 것이다. 도둑이나 강도가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칠 때 쉽게 도망치지 못하도록 말이다.

- 이재인, 「은행 문은 왜 안쪽으로 열릴까」 -

20. 다음 중 (가)~(라)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가): 문은 기능의 측면과 상징의 측면을 함께 가지고 있다.
- ② (나): 건물의 쓰임새에 따라 문을 여닫는 방향이 다르다.
- ③ (다): 문을 여닫는 방향은 공간의 활용과 관련이 없다.
- ④ (라): 은행은 도난으로부터의 안전을 위해 안여닫이를 단다.

21. 다음 중 ⑨에서 쓰인 설명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조
- ② 분석
- ③ 인과
- ④ 정의

22. ㉠~⑨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표를 하여 외부에 드러내 보임.
- ② ㉡: 기본이 되는 표준.
- ③ ㉢: 사물이나 현상의 크기나 범위.
- ④ ㉣: 어떤 일이나 사물이 생겨남.

[23~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여러 번 갔던 길도 찾을 수 없고, 심지어는 가족의 생일과 같은 단순한 정보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현상을 ‘디지털 치매’, 또는 ‘아이티(IT) 전망증’이라 부른다.

이처럼 디지털 기술에 지나치게 의존한 나머지 기억력과 계산 능력 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현상에 관해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한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단지 좋다, 나쁘다고 쉽게 말할 성격의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치매 현상은 인류의 진화, 우리 사회의 노동 환경의 변화와 연관된 복잡한 현상이기 때문이다.

먼저 프랑스의 철학자 미셸 세르의 저서 『호미네상스』와 2005년 12월 ‘새로운 기술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가’라는 제목의 강연 내용을 살펴보면 인류의 진화 과정에 관한 흥미로운 내용을 볼 수 있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직립 원인으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인류는 손을 도구로 사용하게 됨으로써 그 이전에 먹이나 물건을 무는 데 쓰였던 입의 기능이 퇴화했지만, 그 대신 입은 말하는 기능을 획득했다.

- 문자와 인쇄술이 발명되면서 인간은 호메로스의 서사시를 암송할 수준의 기억력을 상실했지만, 기억의 압박에서 해방되어 새로운 지식 생산과 같은 일에 능력을 활용하게 되었다.

- 인류의 진화 과정과 역사를 돌아볼 때, 인간은 상실하는 능력이 있으면 동시에 얻게 되는 능력도 있다.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디지털 기술은 인간의 기억력, 계산력 등의 약화를 가져온 대신 그보다 창조적인 능력을 향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 ㉠ ) 디지털 치매 현상은 인간 진화의 양상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는가?

- 이준기, 「디지털 치매, 걱정할 일 아니다」 -

23. 다음 중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통계 자료를 활용하였다.
- ② 실험 결과를 예측하였다.
- ③ 관련된 속담을 인용하였다.
- ④ 전문가의 견해를 제시하였다.

24. 다음 중 윗글의 중심 소재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입의 기능
- ② 디지털 치매 현상
- ③ 노동 환경의 변화
- ④ 문자와 인쇄술의 발명

25. 다음 중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그러나
- ② 그러므로
- ③ 만약에
- ④ 왜냐하면